

가책형

1. 정답 ③

‘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맥락에 맞는 표현은 ‘씩이다’이다.

오답 해설

① ④ 이 맥락의 ‘씩히다’는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이다. 맥락에 맞게 쓰인 표현이다.

② 이 맥락의 ‘씩히다’는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개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맥락에 맞게 쓰인 표현이다.

2. 정답 ②

‘바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의 의미이다. 반면 ‘바램’은 ‘바래다’의 명사형으로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면 ‘바람’이 맞다. 또한 ‘결실이 맺어지다’의 경우 학자의 견해에 따라 의미 중복으로 보기도 하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의 의미이다. 반면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오빠와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맞는 표현이다.

③ 주어인 ‘내가 바라는 것은’과 서술어인 ‘좋겠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이다. ~이라는 것이다’의 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④ 서술어 ‘주다’는 ‘~가 ~에게 ~을 주다’의 구성을 보인다.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인 ‘인간에 게’가 들어가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3. 정답 ④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신중한 태도로’라는 맥락과 맞는 않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구곡간장(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4. 정답 ③

지민은 ‘첫 번째 내용’을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인 정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해 주고 있다. 일차적으로 동의를 한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를 격률’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정수를 설득하고 있지 않다.
- ② 지민이 정수의 약점을 공략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민이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5. 정답 ②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분 등을 통해 양소유가 스스로 성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2문단 ‘이제 제 몸이~연화도량(천상계)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2문단 ‘자신의 몸을 보니~비소로 깨달았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6. 정답 ④

조식의 ‘삼동(三冬) 뱃뽕 닦고’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가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는 노래이다. 서산의 ‘히’는 임금을 뜻하고 이 해가 진다는 표현은 임금의 승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유응부의 ‘간밤에 부던 바람에’는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비판하기 위해 쓴 시조이다. 수양대군의 폭력성을 ‘바람, 눈서리’에 비유하고 있고 그런 수양대군의 폭력에 해를 입은 충신들을 ‘낙락장송’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이항복의 ‘철령 노픈 봉에’는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 작가가 쓴 시조이다. 님 계신 구중심처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하고 그곳에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흘리는 외로운 눈물인 고신원루를 뿌려 달라고 말하며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조이다.
- ③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는 봄날에 이별한 임을 가을에도 역시나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시조이다. 따라서 ‘저도’의 ‘저’는 이별한 임을 가리키고 그 임 역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지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①

가름: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

부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말의 범위나 부분

구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따라서 맥락적으로 볼 때 ‘가름, 부분, 구별’이 맞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부분: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8. 정답 ②

(가): 자기 친구의 일을 언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이라는 주제에 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다): 청자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를 언급하며 청자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 헬멧이라는 해결 방안을 청자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 뇌손상과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마): 자전거 탈 때는 꼭 헬멧을 쓰라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9. 정답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언급은 이 글에 찾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1문단 '복지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 '도보로 약 15분~확인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 '이게 교통이나~증설한 계획을 수립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0. 정답 ③

ㄷ은 '특수한 영역->일반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배꼽'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둑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경우로 ㄷ과 반대되는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코'와 '콧물'은 긴밀한 관계의 단어이기 때문에 '코'가 '콧물'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수세미'라는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식물 수세미에서 다양한 재료의 수세미로 쓰이며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리는 심리적인 이유로 '손님'이라는 단어가 천연두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1. 정답 ②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의 표현은 있지만 이 연구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실제로 골프장이~제가 확인했습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00군에서도~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2. 정답 ②

관형사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둘 다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는 관형사이고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는 관형사이다.

③ ㄷ의 '저 책'과 ㄹ의 '그 책'은 한국 대중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른 재미있는 책을 가

리킨다.

④ ㄹ의 '이 책'은 앞에서 언급된 두 책과 관련이 된다. 이진이 앞에서 언급된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가고 있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정답 ④

3문단 '여기에서도(제네바 선언) 아동은 보호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를 설명을 통해 제네바 선언으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 '근대 사회에 이르러~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아동 권리 협약) 2016년 <아동 권리 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2문단 '정상적인 발달', 3문단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 4문단 '생존과 발달의 권리'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정답 ①

이 시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원하는 화자의 바람과 의지를 표현한 시이다. 특히나 마지막 연에서 무력과 폭력, 군사적 대립 등을 의미하는 '쇠붙이'를 녹이고자 하는 부분에서 단 순히 순수의 자연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우리 국토가 아닌 곳에서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봄의 눈짓이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민족 통일이 외세가 아닌 민족 주체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봄-통일, 겨울-분단 상황, 쇠붙이-군사적 대립 등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들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시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④ 봄은 통일을 의미하고 겨울은 분단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 둘의 이원적 대립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정답 ④

(마)에서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통하고 의지하는 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에서 그런 통합이 있으려면 말과 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이런 말과 글은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가 같다고 말하고 있다. (가)에서 이 기관을 잘 수리하고 정리 하여야 작동도 원활하게 되며 사회도 발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 그 기관을 잘 정리 하지 못하면 필경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사회는 패망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6. 정답 ③

'해결(解決)'은 '풀 해 / 결정할 결'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만족(滿足): 찰 만 / 발 족

② 재청(再請): 다시 재 / 청할 청

④ 재론(再論): 다시 재 / 논의할 론

17. 정답 ④

ㄹ의 앞 문장 ‘이 낭만주의 시기에~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부분은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의 구체적인 진술(상술) 부분이다. 따라서 그 뒤에 일반화된 진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ㄹ’이 정답이 된다.

18. 정답 ①

정거장에 나온 ‘박’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을 지으며 분명 달라진 표정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찾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1문단 ‘현은 박의 그런~울고 싶게 괴워졌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현은 경찰서를 보며 ‘분묘(무덤)’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낀다는 표현은 맞는 설명이다.

19. 정답 ③

(나)의 조건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하지만 ‘전세방(傳貰房)’은 ‘한자어+한자어’의 구성을 보이는 단어이다. 참고로 ‘전세방’은 한자어끼리 결합된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의 경우이므로 ‘아랫집’은 이에 해당한다.

② (가)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의 경우이므로 ‘씻조각’은 이에 해당한다.

④ (나)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경우이므로 ‘자릿세(자릿貰)’는 이에 해당한다.

20. 정답 ①

3문단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mim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4문단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부분을 통해 문화 수용 과정에서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부분을 통해 특정 공동체의 문화가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mim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은 ‘의사소통 이론’의 예이다. 따라서 ‘요크셔 푸딩 요리법’의 경우는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